

중국 고전 원림건축의 설계원리와 미학(3)

The Principles and Aesthetics of Traditional Wonrim Architecture of China

한동수 /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전임강사
by Han Dong-Soo

중국의 원림건축은 성시건축, 주거건축, 궁궐건축, 사묘건축, 단묘건축, 능묘건축 등과 더불어 중국고전 건축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한 유형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다른 어떤 건축유형도 원림건축 만큼 중국인의 정신세계와 조형세계를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은 없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중국을 정점으로 한국과 일본이 함께 일궈낸 한자문화권의 범주 속에서 세 나라가 각기 가지고 있는 건축미학의 차별성도 비교적 명확하게 담겨져 있다. 따라서 중국 고전 원림건축에 대한 이해는 최근들어 우리 건축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비교건축의 시각을 여는 발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나아가 우리 자신의 존재가치와 특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믿는다.

본 연재는 모두 10회로 구성하였으며 먼저 중국 고전 원림건축의 기본적인 발전과정을 서술하고 이어서 그 설계원리를 규명해 보며, 다음으로 몇가지 대표적인 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구체적인 실천의 과정을 탐색하는 한편, 최종적으로는 오늘의 중국 현실에서 그러한 가치들이 어떻게 접목되고 있는지 추적해 보고자 한다. (필자주)

〈연재목차〉

1. 시대적 풍격과 특색
2. 봉건사회형태의 특징과 원림 발전의 원인
3. 원림의 경영자와 장인, 그리고 이론서
4. 원림의 건축유형과 장식
5. 공간처리 원칙과 수법
6. 경관요소와 조합방식
7. 원림작품의 분석: 자금성의 어화원
8. 원림작품의 분석: 북경의 이화원
9. 원림작품의 분석: 소주의 즐정원
10. 새시대의 정신, 새로운 원림

3.1 주요 조원 장인들

과거의 조원(造園) 장인(匠人)들은 오랜 기간에 걸친 실천과정 속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으며 그 경험이 후대로 이어지면서 뛰어난 원림 예술을 창조하였다. 송대의 문헌 속에는 이미 원예장인(園藝匠人)과 첩산장인(疊山匠人: 첩산은 태호석이라는 돌을 이용하여 인공산을 만드는 기법을 가리킴)에 관한 기록이 존재한다. 명대에는 강남지역의 조원기술과 예술적인 표현이 더욱 정교해졌다. 전여(田汝)의 서호유람지(西湖遊覽志)에는 항주의 유명한 장인이었던 육씨(陸氏)의 탁월한 첩산기술을 언급하고 있으며 소주의 첩산장인을 “화원자(花園者)”라 불렀다고 되어 있다.

중국 고전원림건축에서 하나의 원림 계획

이 성공하느냐 아니면 실패하느냐의 관건은 종종 첩산의 우열에 달려 있었다. 따라서 첩산가는 자연히 조원의 중요한 장인으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장인들은 각기 나름대로 절묘한 기술을 지니고 있었으며 문인들의 조원의지는 그들의 재능을 통하여 비로소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었다. 이어(李漁)의 한정우기(閑情偶寄)에는 문인과 첩산장인 사이에 존재하는 불가분의 관계가 잘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봉건사회에서 이러한 장인들의 사회적 지위는 다른 장인들과 마찬가지로 줄곧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따라서 극소수의 문인들이 언급한 일부의 장인들을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활약상은 물론 이름조차 전해지는 사람이 거의 없다. 하지만 명말청초에 이르게 되면서 이러한 상황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다. 당시 경제와 문화가 가장 발달했던 강남지역에 조원활동이 빈번해지면서 장인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봉건사회의 내부에 자본주의의 맹아적인 요소가 싹트기 시작하였고 시민문화의 발흥으로 사회의 가치관념이 바뀌게 되자 조원 장인들 가운데 기술과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난 자는 점차 사회의 주목을 받고 그 이름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들은 원림의 주인이나 문인과 평범한 장인들 사이에서 일종의 교량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조원의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더구나 그들 가운데 일부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자신의 문화적인 소양을 높이는 한편, 시문(詩文)과 회화(繪畫)에 능숙하여 문인들 대신에 원림 설계의 전반을 주도하는 조원가로 성장하기도 했다. 문인과 사대부들은 이러한 장인들을 존경하였으며 그들과의 교류를 즐기므로써 그들의 사회적 지위는 일반 장인들에 비길 바가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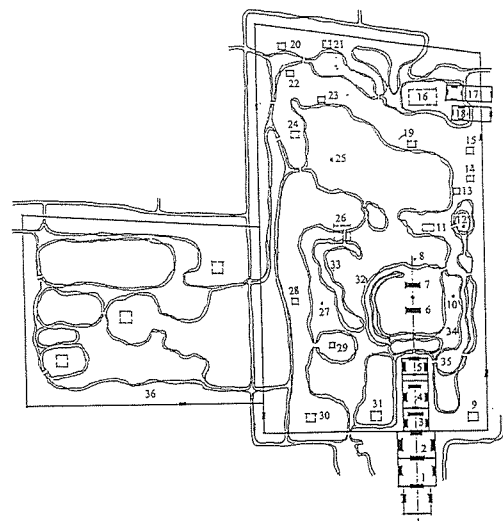
그리고 문인원림의 발전은 높은 수준의 문화적 소양을 갖춘 사람들이 구체적인 조원활동에 투신하도록 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사회적인 가치관의 변화 때문에 사대부, 문인을 비롯한 지식인들은 조원기술을 대장부가 할 일이 아닌 천박한 기술로 더이상 간주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다수의 문인, 화가들은 조원, 첩산의 기술을 직접 습득하여 일가를 이루는 한편 전문적인 조원가로 나서기도 했다. 우리는 전자의 경우를 "장인의 문인화"라 하고 후자를 "문인의 장인화"라고 한다.

여기서는 문헌상에 명확한 기록이 있어 세상에 그 이름이 비교적 널리 알려진 몇몇 장인들에 관해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1) 장남원(張南垣)

이름은 연(漣), 자는 남원(南垣), 강소성 화정(華亭) 사람으로 명대 만력15년(1587년)에 태어났으며 가흥(嘉興)에서 말년을 보냈다. 평생을 첩산과 조원활동에 종사했던 그에 관한 기록은 장옹가전(張翁家傳)에 보인다. 이 기록에 의하면 그는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산수를 즐겼으며 중국의 동남지방에 만들어진 다수의 원림들이 그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한다. 강남지방의 유명인사였던 전겸익(錢謙益), 오위업(吳偉業)과 교류하였고 문화적인 소양이 높았던 그가 만든 첩산작품은 당시 사람들이 가장 숭상하는 것이었다. 그는 커다란 산 전체를 모방하고 축소하는 전통적인 첩산의 방법을 반대하고 "의미가 깊고 형상이 진실되어 들어가 유람을 한다"고 하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일종의 환각상태를 창조함으로써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원림내의 첩산이 마치 커다란 산기슭에 있는 것처럼 만들었다. 이것은 커다란 산의 한 귀퉁이를 취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산의 전체적인 형상을 연상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첩산예술의 신기원을 열었다.

이같은 기예는 자신의 아들 장연(張然)에게 그대로 전수되었다. 아들 장연은 강희년간 초기에 북경으로 초빙되어 풍부(馮溥)를 위하여 만류당(萬柳堂)을 경영하고 왕희(王熙)를 위하여 이원(怡園)을 개건하였으며 이후에는 황실의 원림경영에 참여하여 서원(西苑)의 영대(瀛臺), 옥천산(玉泉山)의 행궁(行宮), 창춘원(暢春園)의 첩산 및 기타 원림계획에 참여함으로써 산자장(山子張)이라는 별명이 붙은 북방의 유명한 첩산가로 명성을 날렸다.



북경 창춘원의 평면 복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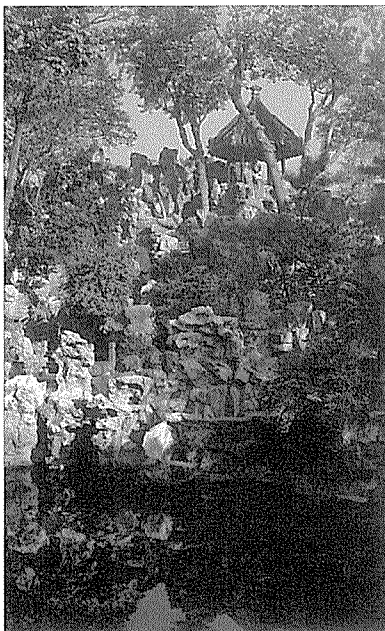
(2) 계성(計成)

자는 무부(無否), 강소성 오강(吳江) 사람이다. 명대 만력10년(1582년)에 태어났다. 어린시절부터 회화에 능숙하여 명성을 날렸으며 중년에는 북방을 여행하고 강남으로 돌아와 진강(鎭江)에서 살았다. 이때 이후로 더욱 정미로운 조원의 기예를 닦았다.

그는 강서 포정사였던 오우여(吳又予)를 위하여 무진(武進)에 택원(宅園)을 경영하였는데 원림이 완성되자 오우여는 크게 기뻐하며 “강남의 명승지라 할 만하다.”라고 칭찬하였다. 또한 이계는 왕사충(王士衝)의 요청에 응하여 난강의 서쪽에 원림을 하나 만들었는데 오우여의 택원과 더불어 세인들의 호평을 받았다. 평생을 전문적인 원림설계에 종사했던 이계는 진강, 상주, 양주, 의정, 남경 등지에 자신의 족적을 남겼으며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명대 숭정7년(1634년)에 원야(園冶)라고 하는 중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원림이론의 저서를 남겼다.

(3) 장산인(張山人)

이름은 남양(南陽), 처음에는 소계자(小溪子)라는 호를 썼으나 나중에 와석생(臥石生)으로 바꾸었으며 상해 사람이다. 활동상황으로 볼 때 계성, 장련, 장연 보다 앞선 시기의 사람이다. 선대에는 농업에 종사했으며 부친은 화가였다. 그는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기에 주력하여 청출어람의 명성을 얻었다. 훗날 그는 화가의 수법을 응용하여 첩산을 만들었고 땅의 형상에 따라 천변만화(天變萬



상해 예원에 만들어진 거대한 가산

化)의 모습을 창조해냄으로써 마치 자연산수를 방불케 하였다. 진소온(陳所蘊)이 쓴 장산인전(張山人傳)에 그의 뛰어난 기예가 잘 묘사되어 있다. 당시, 강남의 수 많은 관료, 지주들이 자신의 원림에 가산을 쌓고자 할 때면 모두 장산인이 설계하여 만들어 주기를 바랐으며 그를 초빙하려는 사람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서찰이 거의 매일 날라올 정도였다.

강남 원림의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반운단(潘允端) 소유의 상해 예원(豫園)과 진소온 소유의 상해 일섭원(日涉園) 등은 모두 그의 손을 거쳐 조성된 대표적인 원림작품들이다. 오늘날에도 남아있는 상해 예원의 가산을 살펴보면 돌을 드러내고 흙을 감추며 대량의 황석(黃石)을 쌓거나 소량의 산석(山石)을 분산, 배치하는 첩산기법을 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조양(曹諒)

조양에 관한 기록은 진소온의 일섭원기(日涉園記)에 보이는데 그는 상해인으로 원림기예가 장남양과 막상막하였던 나이는 장남양보다 어렸던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하지만 조원의 풍격은 장남양과 동일한 계통이었던 것 같다. 그가 설계한 소품(小品)을 설명한 글로 미루어 보면 당시의 장인들은 이미 인지제의(因地制宜: 주어진 땅의 조건에 따라 제도를 적절히 맞추는 것)의 원칙을 적절히 활용하여 설계상의 난제들을 해결했음을 알 수 있다.

(5) 고산사(顧山師)

진소온 소유의 일섭원내에 만들어진 첩산작업에 참여했던 장인의 한 사람이다. 진소온의 일섭원중건우석현오로당기(日涉園重建友石軒五老堂記)에 의하면 그는 당시 사회적으로 폄박받던 노동계층의 장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스스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첩산기술 측면에서 높은 성과를 이루었다. 그의 기술은 장남양과 조양 두사람을 계승하고 이를 토대로 한걸음 더 발전시켰다.

3.2 주요 이론저서들

중국의 고전원림건축은 광범위한 조영 기획의 기초 위에서 풍부한 창작과 실천의 경험을 쌓았으며 문인, 조원가, 장인 이 삼자간의 결합을 통하여 귀중한 경험이 계통화와 이론화의 과정으로 승화되었다. 따라서 원림과 관련된 다수의 이론저작이 세상에 간행되어 나왔다. 그 가운데 원림에 직접 관련된 전문적인 서적으로 편찬되어 비교적

대표성을 갖는 것으로는 원야를 비롯하여 일가언과 장물지를 들 수 있다. 이 세권의 책은 사가원림의 조원에 관한 대표작으로써 송대 이후 명청대 초기까지 발전한 문인원림의 이론을 총괄하고 있다. 그 밖에 문인과 사대부를 비롯한 지식인들의 각종 저술 가운데 원림에 대한 자신의 느낌이나 견해를 밝힌 것이 산재되어 존재한다.

이러한 것들은 전문서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원림의 경영과정이나 기타 간접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대단히 유용한 자료임에는 분명하다. 예를 들면 심부(沈孚)의 부생육기(浮生六記)나 이두(李斗)의 양주화방록(揚州畫舫錄), 진계유(陳繼儒)의 태평정화(太平淸話)와 서암유사(西岩幽事), 임유인(林有麟)의 소원석보(素園石譜) 등과 같은 것이 이러한 유형의 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앞서 언급된 3권의 대표작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원야(園冶)

원야는 계성의 대표적인 저작으로 명대 송정4년(1631년)에 완성되어 3년 뒤인 1634년에 간행되었다. 이 책은 강남지역 사가원림의 계획, 설계, 시공은 물론 각종 부분과 내부처리 등을 전반적으로 다룬 종합성의 저서이다. 명말의 저명한 문인이었던 완대성(阮大誠), 정원훈(鄭元勳)이 서문을 썼다. 모두 3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1권은 흥조론(興造論) 1편, 원설(園說) 4편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2권에서는 난간에 관해서만 논하고, 제3권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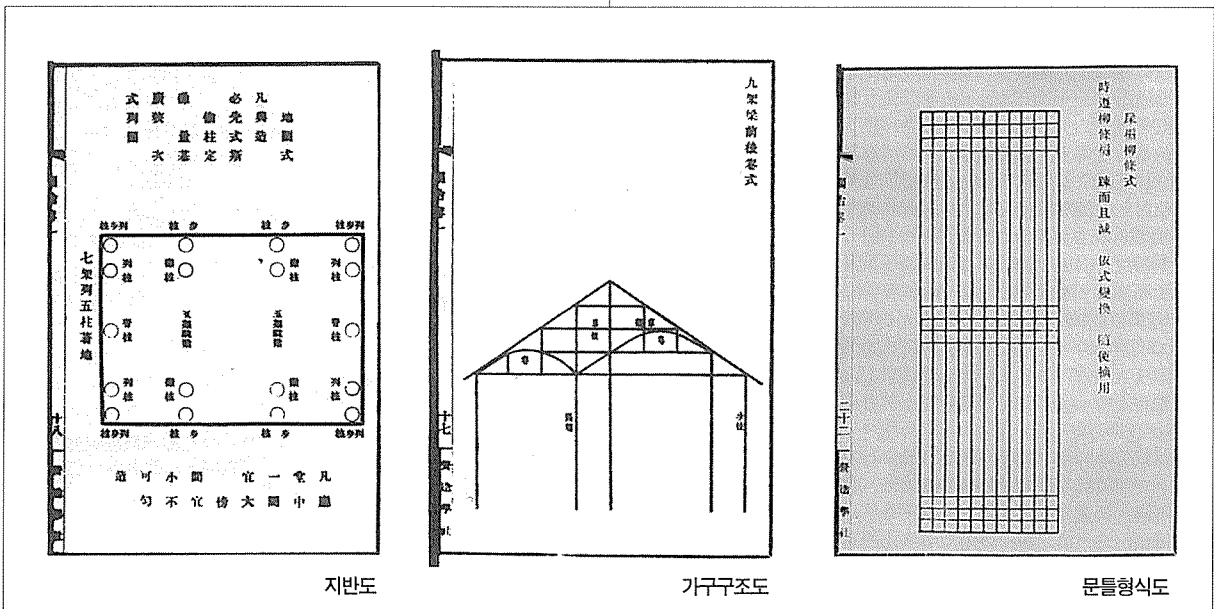
문창(門窓), 장원(牆垣), 포지(鋪地), 철산(掇山), 선석(選石), 차경(借景)으로 각기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흥조론은 원림경영의 전반에 관해 광범위하게 논하고 있는 부분으로 책의 총론에 해당된다. 여기서 저자는 좋은 원림의 평가기준을 “교우인차, 정재체의(巧于因借, 精在體宜)”라고 개괄하고 있는데 여기서 인(因)과 차(借)는 수단이요, 체(體)와 의(宜)는 목적인 것이다. 다음으로 원설 부분은 원림 계획과 설계의 구체적인 내용과 세부적인 것을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도 계성은 두 가지의 계획 원칙을 제기하고 있다. 하나는 “경도수기(景到隨機)”이고 다른 하나는 “수유인작, 완자천개(雖由人作, 宛自天開)”이다. 전자는 원림 조경은 그 땅의 지형과 형세의 특성에 맞아야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고 단점을 피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후자는 사람이 창조한 산수의 환경은 마치 하늘이 내려준 것과 같은 느낌을 부여해 주어야 하며 건축의 배치는 산수환경과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뜻한다.

이 책을 일독해보면 이론과 실천이 서로 결합되어 있는 동시에 기술과 예술이 통합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원림에 관한 저자의 독자적인 견해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2) 일가언(一家言)

일가언은 한정우기(閑情偶記)라고도 하는데 이어(李漁)가 쓴 책이다. 저자 이어의 자는 입옹(笠翁)이며 전당(錢塘) 사람으로 명말 만력39년(1611년)에 태어났



원야 원본에 수록된 다양한 삽도

다. 그는 회화, 소설, 희곡, 조원 등에 이르기까지 다재다능한 문인으로서 평생 사방의 명승지와 유명 원림을 찾아 다니며 유람을 하였다. 말년에 북경에 정착하여 살면서 자신을 위하여 개자원(芥子園)을 만들었다. 일가언은 모두 9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8권은 사곡(詞曲), 희극(戲劇), 성용(聲容), 기완(器玩)을 논하고 있으며, 제4권 궁실부에서는 건축과 조원에 관한 이론을 방사(房舍), 창란(窓欄), 장벽(牆壁), 연편(聯扁), 산석(山石)의 5절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그는 “사람은 항시 대자연의 환경 속에 있을 수 없으므로 물러나 그 차선의 것을 추구하고 대자연을 모방하여 원림을 창조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원림주인이나 조원가의 심미적 정취와 생활정서가 그 속에 녹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雅)를 문인, 사대부들의 생활 속에 있는 핵심이자 심미적 최고의 경계로 여겨 조원예술의 기준으로 삼았다. 그리고 토석산(土石山)과 석산(石山)은 문인 원림 및 그 변체의 서로 다른 격조를 반영하는데 이어의 경우, 전자를 제창하고 후자를 반대한 것은 문인원림의 입장에서 세속의 부귀와 덧없는 삶에 대하여 경멸함을 의미한다. 아울러 그는 자연을 귀하게 여기고 경제를 중시하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기암괴석을 전적으로 나열하여 자연을 꾸며내는 것을 억제하는 한편, 첩산의 내용과 절제에 치중하였다. 이러한 첩산전통은 송대 이후 문인원림의 전통이었으며 계성의 견해하고도 일치하는 바였다.

(3) 장물지(長物志)

장물지는 문진형(文震亨)의 저작이다. 그는 명대의 저명한 문인화가였던 문정명(文徵明)의 증손자로 명대 만력13년(1585년)에 태어났다. 자는 계미(啓美)이며 장주(長洲) 사람이다. 시와 그림에 능했던 그는 원림에 대해서 비교적 계통적인 견해를 지니고 있었고 그것은 당시 문인원림관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장물지는 모두 12권으로 되어 있으며 그 중에 조원과 직접적인 관련을 지닌 부분은 실로(室廬), 화목(花木), 수석(水石), 금어(禽魚)의 4권이다. 나머지 각 권의 내용에도 원림에 연관된 단편적인 논의들이 있다.

실로 부분에서는 서로 다른 기능과 성질의 건축 및 문, 계단, 창 등등을 17절로 구분하여 서술하고 있다. 또한 원림의 입지선택에 관하여 문진형은 “산과 물 사이에 있는 것이 으뜸이요, 촌락에 있는 것이 그 다음이요, 교외에 있는 것이 또 그 다음이다.”라고 했다. 다음으로 화목

에서는 원림에서 자주 사용되는 42종의 관상수목과 화훼에 대하여 그 자태와 색채, 습성, 재배방식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 부분의 내용은 조선시대 강희안의 저서인 양화소록과 유사점이 있음). 수석 부분은 모두 18저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루고 있는 것은 원림에 자주 보이는 물의 형상과 돌 재료에 관한 것이다. 금어는 조류 6종, 어류 1종에 관해 다루고 있는데 각각에 대하여 형태, 색깔, 습성, 훈련법, 기르는 방법 등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圖